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11/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대원불교학술총서11) 마음을 만드는 뇌의 구조	문일수	운주사
2	어싱: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3	미얀마 아라한의 수행:9위빠사나 선사들의 법문모음	강종미 편역	해장각
4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대념처경과 그 주석서(초기불전001)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5	운명을 바꾸는 법(정공법사요법사훈강설)	정공 법사/이기화	불광출판부
6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아비담마 길라잡이(1) 아비담맛타상가하*ABHIDHAMMATTHA SANGAHA*전정판	아누룻다/대림,각묵	초기불전연구원
8	낡은 옷을 벗어라:법정스님 미출간원고68편 수록*법정스님 원적10주기 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9	능엄경대의 풀이:우주와 인생의 진리근원을 밝힌(증보판)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10	맛지마니까야(3) 중간길이로설하신경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책세상

독서의 계절 불교 소설에 빠져볼까

완연한 가을이다. 가을만큼 독서하기 좋은 계절은 없다. 불교 소설을 찾아보기 힘든 요즘, 귀중한 소설 2편이 발간됐다. 한 책은 사명 대사의 일대기를 다룬 장편역사소설이고, 다른 한 책은 불자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자전적 소설이다. 두 책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愛民정신으로 칼을 품었던 사명을 그려내다



칼을 품고 슬퍼하다
이상훈 지음
여백 / 1만6800원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임진왜란은 1592년(선조 25년) 5월 23일부터 1598년 12월 16일까지 약 7년간 이어진 전쟁이다. 흔히들 왜적이 침략해 지난한 전투를 벌이다가 이순신 장군으로 인해 왜적이 패퇴한 전쟁으로 알고 있으나,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이라는 통일국가가 가용한 유·무형의 자산을 총동원한 최초이자 유일한 총력전이자 동북아 최초 국제전이었다. 이 전쟁으로 인해 한·중·일 삼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그만큼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전개가 드라마틱하다보니 임진왜란은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였다. 현재까지 제작된 임진왜란 영화와 드라마는 총 8편으로 다른 주제에 비하면 압도적인 숫자다. 하지만, 승병을 분연히 일으켜 왜적과 싸운 승장(僧將)과 승병의 이야기는 매우 편린적으로 다뤄진다. 공전의 흥행을 기록한 영화 '명량'에서도 승군은 관군과 함께 싸우는 비정규 원군으로 그려지고 있다.

스타 PD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상훈 소설가는 우연히 접한 사명 대사의 애끓는 한 마디가 화두가 됐다.

"포검비(抱劍悲), 칼을 품고 슬퍼하다."

불살생을 맹세한 승려가 칼을 들고 적이지만 귀중한 목숨을 거둬야 하는 참담한 심경이 묻어나는 일구(一句)다. 이 일구가 이상훈 소설가에게는 10년의 화두가 됐다. 그는 10년 동안 사명 대사의 흔적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고, 수차례 일본을 오가며 자료를 수집했다.

10년간의 노력을 통해 벼려낸 것이 바로 장편소설 〈칼을 품고 슬퍼하다〉이다. 〈사명집〉권3 '과진천'에 있는 일구 '포검비'에서 가져온 소설의 제목은 곧 소설의 주제이기도 하다. 소설은 사명의 어린 시절, 천재 소년으로 불리던 응규의 첫사랑 이야기로 시작한다. 첫사랑 아랑과의 가슴 뛰는 사랑도 잠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아랑과 어릴 때 잃은 형제, 그리고



사명대사의 진영

임진왜란 종결자 사명대사 면면들
이상훈 작가 10년 취재로 되살려
왜적에 대응한 건 민초와 승려들
"사명은 조선을 구한 영웅" 강조

부모의 죽음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워하던 사명은 승려의 길로 들어선다. 자신을 짝사랑하던 미옥을 끝내 뒤로한 채.

출가 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던 사명은 승과에서 장원을 차지했으며, 그의 학문적 깊이를 알아본 사대부들과 시문을 나누고 우정을 쌓아갔다. 하지만 곧 임진왜란이라는 격랑이 조선을 덮쳤다. 왜적으로 인해 민중들은 스러져갔고, 결국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사명 대사는 분연히 일어나 승병의 대장이 돼 왜적을 물리쳐 나갔다.

승장으로서의 사명은 유학을 신봉하는 조선 사관들이 기록해 놓은 것보다 훨씬 뛰어난 전쟁 영웅이었다. 왜군 장수 가토 기요마사의 목을 움츠러들게 한 "그대 목이 조선의 보배"라는 일갈처럼 사명의 활약상은 그야말로 종횡무진 눈부신 것이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전투의 그 어떤 승리보다 참으로 값진 것은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 포로들에 대한 사명의 측은지심이었다.

오직 자신의 권세만을 누리려는 조선의 권력자들이 외면해 온 조선인 포로들을 위해 사명은 거침없이 적의 소굴로 들어갔다. 일본의 많은 적들이 사명에게 글 한 줄을 얻기 위해 줄을 서고, 사명의 가르침을 받으려 머리를 조아렸다. 사명은 무도한 일본의 적들에게 결국 문(文)이야말로 무(武)를 이기는 진리임을 설파하고, 그들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했다. 그리고 끝내 일천오백 명에 달하는 조선 백성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온다.

다 알고 있는 역사이지만, 작가가 보여주는 스토리텔링은 탄탄하고 촘촘하다. 허균, 허난설헌과의 인연, 일본 등 주변국의 정세, 사명 대사의 십자가 이야기 등을 흥미롭게 엮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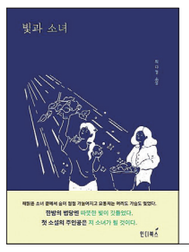
이를 통해 작가는 말한다. 포로 일본으로 끌려간 민초들에게 사명은 살아있는 부처였다고. 사명 대사는 조선의 고승이 아니라 조선을 구한 영웅이었다고. 그렇기에 임진왜란의 영웅은 이순신 장군만이 아니라고. 애민정신으로 계를 어기면서까지 칼을 들었던 사명이야말로 조선을 구한 진정한 영웅이었다고.

▲이상훈 작가는

KBS 공채 피디로 방송에 입문, SBS 개국에 참여해 수많은 히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2014년 첫 소설 〈한복 입은 남자〉가 국민적인 관심 속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소설 〈김의 나라〉는 제16회 류주현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문학성을 인정받았다.

나를 치유해나간 여정 그리고 불교

성폭력 등 삶의 질곡 겪었던 작가
불교 귀의하기까지 성장통 그려



빛과 소녀
최다경 지음
인디북스 / 1만6800원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남에게 털어놓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이 자신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야기라면 더욱더.

자전 소설 〈빛과 소녀〉를 내놓은 최다경 작가는 어릴 적 성폭행의 후유증으로 20년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한국과 독일을 오고 가며 여러 번 정신병동에 입원해야 했다.

잊으려 해도 도저히 잊을 수가 없고, 덮으려 해도 당최 덮어지지 않는 그 시간대를 그저 인생의 침체기, 무덤, 함정, 암 덩어리라 여기며 의식 저편으로 밀어 넣고 달리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던 작가는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상처는 희미해졌지만 다시 꺼낼 용기를 좀처럼 낼 수 없었다.

서울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장애를 경험한 예술인의 인생사를 작품으로 펼쳐 놓을 수 있는, 작가로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를 얻었지만, 자전적 스토리를 펼쳐 놓기 전의 심리적 중압감이 상당했다고도 전한다. "정신질환이란 표현은 아직도 여전히 실로 민감하고 조심스러우며 거부감이 들고 순순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어떤 모양새였건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하루하루 생활하고 기능했다 항변하지만, 이 낙인엔 감내해야 할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너무나 강해 보인다"고 담담히 고백한다.

그런 그에게 빛으로 다가온 것은 불교였다. 불교에 귀의한 작가는 자신이 회복된 지난하고도 기나긴 여정을 되돌아보며 고통 속의 인간에게 위안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할 수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담아 실화에 바탕을 두었지만 문학이어서 부르기 너무도 자유로운 노래를 마음껏 부르는 심정으로 여주인공 '리사'의 입을 빌려 자신의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펼쳐 놓았다.

실제, 리사는 소설 말미에 산사를 찾는다. 이곳에도 씩씩 거리며 분풀이 할 곳을 찾던 주인공은 스님들과의 만남에서 점점 제자리를 찾아간다. "참회를 해도 안 되고 용서를 하려해도 안된다"는 주인공의 성토에 스님은 이렇게 조언한다.

"자비가 없어 그래. 우물이 얕아 길어 올릴 게 없어. '자'가 사랑, '비'가 연민, 자비를 키워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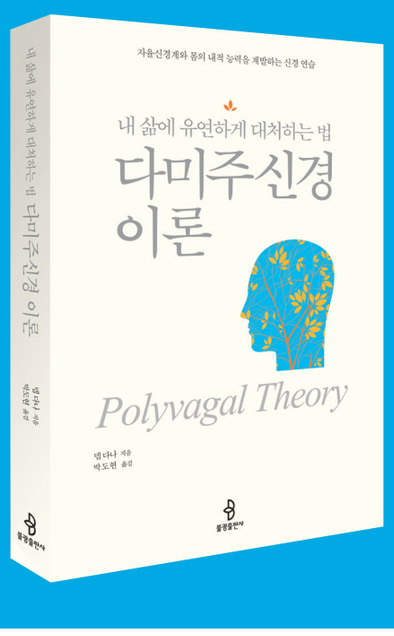
스님의 이 한마디는 리사를 변화시켰고, 어느 날 문득 변화를 체험한다. 그 순간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노래한다.

"먹구름 같은 머릿속. 끊어지지 않는 한 생각, 아니 오만 생각들. 모든 것이 환영들. 숨이 점점 가늘어지고 고동치던 머리도 가슴도 멎는다. 한 밤의 법당엔 자비의 빛이 깃든다. 눈을 뜨면 항상 그곳에 있는 붓다는 빙그레 웃다가 아름답다가 한낱 불상이었다가 그리고 멈춘다네. 그리고 사라진다네." 신중일 기자

우리 안에 고통을 이겨내는 타고난 힘이 있다!

내 몸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놀라운 신경과학,
'다미주신경 이론'의 모든 것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부터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최선의 방식으로 삶에 대응하는 힘을 길러 주는 신경 연습!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신경과학 신경심리학 분야 1위

내 삶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
다미주신경 이론
뎁 다나 지음, 박도현 옮김
304쪽 | 2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문득' 찾은 사찰에서 '으레' 지나치는 것들
흔하고 오래된 것들 안에 깃든
우리 역사와 문화, 옛사람들의 염원!



당신이 사찰에서 발견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허투루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
알면 알수록 보이는 사찰 구석구석 숨은 보물찾기, 마지막 라운드!

● 암벽 위에 새기고, 바위를 다듬어 만든 '사찰의 석조물'
마애불 | 석탑 | 석등 | 승탑 | 노주석 | 당간지주

●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 '사찰 속에 숨겨진 의외의 보물'
수미단과 탁자 | 계단과 석축 | 해우소 | 백자연봉 | 청자 기와 | 오리 조각 …



사찰에 가면 문득 보이는 것들
사찰 속 흔하고 오래된 것들의 놀라운 역사
노승대 지음 | 올컬러
432쪽 | 30,000원